

## 도시경관과 공공건축물

### Urban Landscape and Public Building

지자체가 실시되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자치단체장의 가시적인 행정성과를 보이기 위한 공공건축물의 건립인 것 같다. 그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멋있는 자체청사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건설된 공용의 청사들을 살펴보면, 과거와 달라진 것은 부지면적을 매우 넓게 쓰고 있는 것이고, 청사설계 및 부지조성방식은 과거와 다름없다. 즉 대부분의 청사는 화강석으로 치장된 육중한 형태이며, 부지경계에 담을 두르고, 출입구에는 경비초소를 세우고, 청사는 도로에서 후퇴시켜 관청의 장 또는 관청을 방문하는 정부의 높은 분들이 승용차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청사의 전면에 로타리형 차도광장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패턴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새로 건립되는 공용의 청사들은 기존시가지의 중심지가 아닌 시가지의 외곽에 입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넓은 면적의 청사부지를 도시중심지에서는 찾을 수 없고, 토지매입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넓은 부지에는 저층의 거대한 청사 이외에 지상의 주차공간과 분수대 등 조경공간이 조성되고, 심지어는 테니스 코트도 설치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이런 행태는 아마도 공용의 청사를 번듯하게 건립함으로써 주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주고, 보다 나은 시설로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화강석의 육중한 청사는 주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커녕 너무 권위적으로 느껴져 친근감을 주지 못한다.

게다가 이런 형태로 조성된 관공서는 도시경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도시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부분의 관공서들이 부지경계에 담을 두르고 있어서 도시활동의 연속성을 저해할 뿐 만 아니라 주변경관과도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관공서건물의 설계가 주민과 도시경관보다도 관청의 장과 관청을 방문하는 높은 분들의 출입을 편리하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외국의 관공서는 대부분 화려하지 않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로 건립되고 있으며, 특히 큰 도로변에는 담을 설치하지 않고 건물을 배치하여 관공서의 출입을 도로에서 직접 건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영국총리공관은 도심의 다우닝가 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도로에 연결하여 건물의 출입구가 있어 총리가 출입할 때 일반인 또는 언론인들과의 접촉이 자

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렇듯 관공서는 물론 총리공관까지도 도심지에 위치하고, 도로에 접해서 건물을 배치하고 있다. 도로란 누구나 통행하는 공공의 공간으로, 관공서가 도로에 접해 있다는 것은 주민과 함께 한다는 의미가 부여된다. 결론적으로 외국의 관공서는 주민들이 접근하기에 쉽고, 편하게 이용토록 설계되어 관공서출입에 거부감이 없으며, 공무원과도 격의감이 없어 정부정책에 주민의사가 빠르게 전달된다. 또한 관공서건물이 도로에 접해서 건축됨으로써 가로경관의 연속성이 유지되고 도시활동이 활기를 띤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지어 민간의 업무용 건물도 부지경계에 담을 친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너무 독자적이고 자기 것을 남의 것과 구별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같이 관공서 출입이 많이 요구되는 사회생활에서 공공건축물환경이 시민들에게 주는 정서적 영향은 매우 크다. 이제라도 자치행정의 발전과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진작을 위해 관공서건축에서부터 주민과 함께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작업이 시작되어야 하겠다.

다행히도 최근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관공서이용에 편의를 위해 기존의 담을 철거하고 조경을 하여 쾌적한 시가지환경을 조성하거나 부지내부의 지상주차공간을 없애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자치행정의 발전에 매우 고무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건설되는 모든 관공서의 입지는 주민들이 대중교통 또는 보행으로 접근이 편리한 생활권의 중심지에 배치하여 심각한 도시교통정체의 완화와 에너지소비 감소를 위해 관공서출입에 승용차이용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공서건물은 도로에 접해서 건축하고, 간선도로에서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며, 주차공간은 가능한 지하에 설치하고, 담은 쌓지 말고, 건물도 화려하지 않고 검소하면서 이용에 편리하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중심지의 입지에 따른 토지매입비용의 증대는 건물의 고층화로 부지면적을 축소하면 비용이 상쇄되면서 오히려 주변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므로 이득이 많아진다. 그리고 가능하면 기존 청사의 담도 모두 철거하여 외부공간은 주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함으로써 주변과 조화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함과 동시에 주민들이 편안하게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공건축물로 다시 태어나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 행정수도건설의 관공서 배치계획에도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